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03

아벨을 죽인 가인

(창세기 4:1~4:15)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예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거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이젠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아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을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이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께서서는 그 모든 걸 지켜보셨어요.

**“에휴.. 고 녀석들 나에게 죄를 짓긴 했지만
저리도 외롭게 사는 모습이 딱하구나.
내가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야겠다.”**

1P

“응애! 응애!”

**그 선물은 바로 아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해주신거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남자 아기
두 명이 생겼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었어요.

**“나는 가인이야! 나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지!
밭이며 채소며 다 내가 재배하는 거라고! 에헴!”**

**“나는 동생 아벨이야.
나는 가족들을 위해 양들을 돌보는데 나처럼 온순한
양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른다구..! 헤헤..”**

부모인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농부인 가인은 들에서 거둔 곡식을 바쳤고
목동인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어린 어린양을 바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지였어요.

가인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마음엔 항상
불만이 가득했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헤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더 좋아하셨을까요?

그야 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내 제물만 안 받으시는거야~!
저 비스듬비스듬한 아벨 녀석 건 짤만 받으시면서!
에잇! 사람 차별하시는거야 뭐야~!”**

하나님은 가인이 화를 가라앉히고 예쁜 마음을
먹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가인아. 너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구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누르락~푸르락!
아주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구나.
어디 화라도 잔뜩 난 게냐?”**

하지만, 이미 심통이 날대로 난 가인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채로
그저 혼자 씩씩대고 있을 뿐이었죠.**

**“어허, 녀석하고는. 가인아 네가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어찌 얼굴빛이 그렇게 되었겠느냐.
네가 지금처럼 마음에 나쁜 것들만 가득~하다면
결국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의 마음을 잘 한번 다스려보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독여주셨지만 가인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있던 불만과 심술, 질투심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죠!**

**“아잇 자존심 상해! 아벨 저 녀석은
허구한날 풀밭에서 양들이랑 땡가땡가 노는데.
뭐가 그렇게 잘 낚다고 저 녀석 제물만 받으시는거야?
아니 따지고 보면 농사가 훨씬 힘든 일 아니냐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고생고생해서 농사지었냐고!”**

가인은 이젠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고
동생 아벨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어이 아벨! 이 형님이랑 들판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

**“어 형님! 제가 지금은 양을 돌봐야되는데
나중에 같이 가면 안 돼요?”**

**“뭐어? 쪼그만게 건방져서는! 형 말이 말 같지 않아?
잔말 말고 어서 따라오란 말이야!”**

가인이 욱박지르자 가엾은 아벨은 형을 따라갔어요.
조금 뒤 자신에게 벌어질 끔찍한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날 결국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죠.
하지만 가인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가인아. 아벨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벨이 어디있는지 알고 있느냐?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거라.”

하지만 가인은 시치미를 뚝 떴어요.

**“아, 하나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뭐, 아벨 녀석의 껌딱지입니까?
하루종일 그 녀석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껌딱지냐구요!”**

어리석은 가인, 진짜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화가 나셨어요.

**“가인 네 녀석이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네 동생 아벨이 흘린 피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지금 나에게 울부짖고 있느니라.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의 호통에 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 하나님...! 그, 그게 대체 무슨 소림니까.
저는 정말 모른다구요.”**

**“네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가 네 동생의 피로 이 땅을 더럽혀놓았으니
이젠 이 땅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앞으로는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쌀 한톨 얻을 수 없을 것이야..! 알겠느냐?”**

그제서야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만 봐 주세요...
제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땅에서 수확을 못 하게 하시면 뭘 먹고 살란말입니까?”**

**“농사로 먹고살 수 없다면 떠나야지!
너는 앞으로 떠돌이 개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이 땅 저 땅을 떠돌게 될 것이다.
착한 동생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내 앞에서 죄를 감추려하다니.
평생 동안 짓값을 치루면서 살아야 할 것이야!”**

가인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한참 늦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인은 여기저기를 떠돌다
‘놋’이라는 지역에서 고된 삶을 마치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그 당연한 사실을 가인은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